

내가 만난 하얀 미소

김 미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봉사자



꽃샘 추위가 오
는 봄을 더디

게 하지만 그래도 봄을 알리는 자연의 모습은 온 땅에 번져 갑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호스피스 봉사를 하

면서 만났던 환자들의 모습을 한 분 한 분 떠올려 봅니다. 두 달 동안 6번의 만남으로 짧은 이별을 했던 마리아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나이 39세. 남편과 1남 1녀를 둔 주부로 피부암이 발병한지 1년 된 분이었습니다. 머리에 뿌루지 같은 것이 생겨 서울의 모병원에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도 받았는데 재발한 것입니다. 집이 대전이라서 내려와 우리 병원을 택한 것은 웬지 성모병원에 오면 꼭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첫 방문에서 그녀는 소녀처럼 수줍어하며 맑고 하얀 미소를 지으며 봉사자를 반겼습니다. 영세 받은 지 3년 밖에 안 되어 신앙심이 깊지 않다고 겸손해 하면서도 성당에서 독서전례도 잠시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종교는 개신교였지만 부인의 종교를 존중해 주었고 서로 알뜰히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문에는 많이 아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통증이 심한데도 주위 사람들이 더 힘들어 할까 봐 참고 말을 안 하여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다는 말을 들으니 고통 중에도 남을 배려하는 그녀의 착한 마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체위변경을 도와주고

통증은 참지 말라는 말을 헤드리며 가만히 손을 잡아 드렸습니다.

남편은 오랜 병 뒷바라지에 계속 1인용을 쓰기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지만 환자가 워낙 부끄러움을 타 다인용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경당과 1층 기도실을 찾아보라는 권유를 했고, 남편은 기도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찾아가 기도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마음을 기대고 싶 수 있어서 좋았다며 입교할 의사를 내비치셨습니다. 부인을 많이 사랑하는 선량한 남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발이 퉁퉁 부어있고 통증으로 눕지도 못하고 괴로워하였지만, 부종 마사지를 하면서 기도와 성가를 불러 주면 조그맣게 따라 하면서 행복해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한 달 만에 병실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몹시 쇠약해진 그녀는 집에서 간병인을 두고 투병하면서도 간병인에게 입교를 권면해 기도와 교리를 알려 주었고 간병인은 지금 예비자교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마리아님을 보며 '사정이 좋거나 나쁘거나 꾸준히 전교하라'는 성서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주님의 참 제자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저 착한 영혼 끝까지 함께해주시길 기도하며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만남.

아침 10시경 그녀가 매우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수녀님과 방문을 했습니다. 이미 가까이 온 죽음을 잘 받아들이시며 담담하고 평온한 모습이셨습니다. 오후 3시 그녀는 봉사자들의 기도와 성가소리를 들으며 두 눈을 감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잠을 자듯이... 임종사실이 알려지자 일순간 밀려든 보호자들의 곡소리로 아수라장이 된 병실을 정리하고 가족과 마지막 작별을 하시기 도와 드렸습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와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당신이 울지 말라고 해서 나 안 울게. 사랑해. 아이들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말고 잘 가. 남편은 울지 않았지만 성가를 부르고 있는 봉사자의 가슴은 눈물로 흥션 젖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아들과 딸이 들어왔습니다.

몸부림쳐 우는 딸에게 '울면 엄마가 네 걱정이 되어 가지 못하고 뒤 돌아 보며 마음아파 해서 그러니 사랑한다고, 잊지 않을 거라고, 편히 잘 가시라고 말씀드려 엄마가 듣고 계신단다' 딸은 흐느끼며 '엄마 사랑해! 포옹을 하고 작별을 하였습니다. 아들도 '엄마 사랑해! 언제나 기억할게. 인사하더니 엄마에게 '뽀뽀해도 돼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너무 좋아하실 거야. 엄마의 뺨에 작별의 키스를 하는 13세 소년의 모습이 그렇게 의젓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이 작별을 하는 동안 우리 봉사자들은 그들이 아름다운 작별을 할 수 있게 돕고 성가를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아픈 육신 이제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느님 품에서 평화의 안식을 누리기를... 영안실에 시신을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가슴 아프지만 참 아름다운 이별을 본 우리 봉사자들은 그 감동을 오랜 기억으로 간직했습니다.

마리아님의 입관예절과 장례미사에 참석하였고

가정방문도 하였습니다. 많은 슬픔을 이겨내고 그 후 남편과 딸은 영세를 받아 온 가족이 주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고, 남편은 병으로 잠시 고생하였으나 치유되어 건강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별가족 모임에도 두 번 참석하셨고 아이들도 성당에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봉사란 우리가 사는 지구에 지불하는 집세와 같다' 는 말이 생각납니다. 내가 생명을 얻어 삶을 잘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나의 처지와 나의 적성에 맞는 봉사를 찾아서 내가 누리고 산 삶의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것이 떳떳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의 건강과 형편이 허락하는 날까지 열심히 나의 삶을 호스피스와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봉사를 허락하신 하느님과 이해와 협조를 해주는 가족에게 감사하며, 더욱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지금 말하며 살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 내고 새 생명을 피우는 세상을 보며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듯 고통과 싸우면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희망을 잃지 않았던 마리아님의 삶을 보시고 주님께서 참 아름답다 하셨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 봅니다

